

운명이라는 말장난 아래에서 붉은 늑대는 웃었다.

" 오늘은 어떤 행복한 운명이 우릴 기다릴까요? "

외관



- 마구 구불치는 머리카락 끝은 둥글게 잘 말린 채로 허벅지에 닿을 정도로 길다.
- 보통 안쪽으로 말려있지만, 문제의 곱슬이 쉬이 따라주지 않아 잘 뺄지는 편이다.
 - 백발의 머리카락은 아래로 향할 수록 어두워져 검게 물들어간다.
- 흰 늑대의 귀에는 여러 장신구들이 달려있었다. 볼때마다 늘어나는 기분이야, 안그래?
 - 검은 역안에 떠오른 작은 푸른색 동공.
 - 축 처지는 눈꼬리는 질고 긴 쌍꺼풀의 틈에 치솟아 보였다..
- 항상 볼 수 있는 붉은색 케이프. 눈에 띄니까 벗는 게 어때니? 그건 싫어요.
- 주렁주렁 반짝이는 것들을 달고 있으면서 손가락에는 무엇도 없었다.

이름

[벨제토릭 헤르미오네 페로 / Vergetorix Hermione Perrault]

지독하게도 귀엽지 못하게 긴 이름이죠? 벨제토릭이나 헤르미오네말고...

부디 '페로'라고 불러주길!

나이

14

키/몸무게

136CM/32KG

분명 잘 먹고 잘 자고, 문제없는 환경인데도 키가 작네요.

놀리면.. 안될 지도?

선정한 동물

붉은 늑대

성격

늑대보다 높은 운명을 가진 사람만이, 늑대를 잡을 수 있다.

- 몽골 유목민의 속담

【운명의 관찰자】

:: 운명론자 / 살갑고 친절함 / 장난스러운 / 발 넓은 ::

그녀를 뜻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운명론자! 특하면 운명을 입에 담고 언급하죠. 때로는 그것이 매우 장난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게... 특하면 그것마저 너의 운명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 성향 때문에 타 프레의 아이들 중에서 종종 벨제토릭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이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도움 안되는 오지랖에 가까우니까요. 그럼에도 그것은 그녀의 친절입니다. 이게 그대의 운명인 거예요, 받아들이세요. 하지만 때때로 운명을 파괴하는 운명을 지닌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이 그대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당신을 지켜보는 게 그녀가 하는 대표적인 행동입니다. 살갑고 친절함 행동과 때때로 장난스러운 모습으로 누군가와 친해지고,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도 하며, 의문스러운 행동으로 거리감을 두고 관찰하는 어린 붉은 늑대. 늑대가 관찰을 하는 것은 사냥을 위해서일까요?

그녀는 항상 웃고 있었습니다. 발화점이 높은 그녀를 화나게 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죠. 그녀를 화나게 하면.. 온갖 가십에 휩싸이게 된다고 해요. 타 프레에서 그녀를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 조심하도록 해요. 살갑고 친절함 관찰자는 늘 다정하게 한 명 한 명을 살피니 그럴 일은 자주 없긴 하지만요. 당신의 이야기에 쉽게 공감해주지만, 그 선은 넘지 않을 거예요. 어릴 적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은 그녀니까요. 머리가 좋은 것인지 방대한 정보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사소한 이야기도 전부 외우고 사니 그만큼 세심합니다. 다만... 친절함과 달리 제멋대로인 구석이 있습니다. 뭐... 다들 예상했듯이 말이에요. 궁극한 것은 어찌나 많은지 무엇이든 꼬치꼬치 캐묻고, 세상의 모든 진리와 이야기는 다 알아야 하는 것처럼 굴죠. 그 과정에서의 굳센 고집과 누군가 자신을 통제하려고 구는 걸 좋아하지 않는 것이 은근하게 티가 납니다. 그녀는 종종 말하곤 해요.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나의 운명뿐이에요.

기타

01 BIRTH

08.17

틀립나무 :: 전원의 행복 / 파이라이트 :: 보호력

02 LIKE

누군가의 행복하다는 말, 운명, 정보, 붉은 색, 단 음식, 귀엽고 포근한 것, 사람, (책 속의) 이야기.

부디 그녀에게 행복하다고 말해주세요.

03 HATE

요리, 불행, 제재, 통제.

그녀를 벨제토릭이나 헤르미오네라 부르지 마세요.

04 HABIT

정보 수집, 산책 겸 순회, 일기(기록이라고 부른다).

매일 아침, 누구보다 빠르게 신문을 읽습니다.

페로는 일기를 무슨 논문처럼 쓴다며?

그날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적는데, 그정도면 집착아냐?

아, 그럼 애들 애기도 있나? 당연한 소리를 왜 해? 이 이야기도 적힐 수도 있어!

- xx년 xx월 xx일, 페로의 일기장에서 일부 발췌.

05 Hermione Perrault

페로 家

오래전부터 '헤르미오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신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상 중 한 명의 아담덕분에 얻게 된 미들네임으로, 그전부터 쪽 신문사를 했다고 합니다. 역사가 오래된 만큼 거대한 신문사지만, 때때로 가벼운 가십도 담는 편입니다. 하지만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 그런가, 시민들에게 꽤 신뢰받는 신문사입니다. 사실 시민들에게는 진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녀의 이야기 속의 페로가문은... 페로가 성인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죠? 헤르미오네가 그들의 정체성인 것처럼 굳어요. 실제로 페로 가문은 모두 헤르미오네라는 미들네임을 쓴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런 페로가문을 그다지 이해하진 못하는 눈치예요. 가문에서 홀로 페로라고 불리길 원하죠. 그들 앞에서 말했다간 가문에서 쫓겨날지도 모르는 노릇이니, 집에서만큼은 벨제토릭이 되지만요.

이해하지 못하지만 사는 것은 다른 걸까요? 그녀는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가끔은 타 프레의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는 일도 서슴지 않지만, 그 경우에는 낮에라도 그녀의 집에 들른다고 합니다. 기숙사를 단 하루(!)만을 이용하고 그 뒤로 부터는 페로 家의 저택에서 통학한다고 합니다.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기숙사를 하루만 이용한 이유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06 정보상

그녀는 유능한 정보상입니다. 뭐, 가문이 가문이니깐요!

이 말은 그녀가 에덴 대부분의 가십과 정보를 끌어모으는 편이라는 것이죠. 특하면 거리를 순회하며 산책하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벨제토릭, 어제도 외출하지 않았니? 아, 오늘은 오늘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페로라고 불러주시면 안 되나요, 벨제토릭은 안 귀엽잖아요? 뻔뻔하고 당당한 모습도 정보상이 가질 덕목이죠. 그 탓에 어지간한 타 프레 주변의 시민들은 그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실이든 가십이든 모든 정보를 끌어모으고 기록합니다. 그런 그녀에게 정보를 살 수도 있다고 하죠? 하지만 그녀는 한 번 판 정보는 다시 팔지 않는다고 해요, 그대로 폐기처분이 된다고 하죠.

07 그 외의 특징

- 1) 그녀의 컷속에 들어간 이야기는 전부 기록된다고 합니다.(아이들의 대화도 마찬가지)
- 2) 힘이 매우 세다고 하네요, 특하면 펜을 부러트릴정도니까요?
- 3) 의외로 사람을 쉽게 미워하지 못하는 편이래요, 정이 많은가?

08 Belongings

밝은 노트	펜	‘헤르미오네’ 일간지
-------	---	-------------

관계

후관

:: 주드 카시아 ::

[나무가 왜 갈색일까? / **제가** 그 답을 알아왔습니다!]

어느날 주드 카시아의 엉뚱한 질문, "나무가 왜 갈색일까?", 실은 의미없이 툭 던진 말에 걸려버린 뽀레토릭 헤르미오네 페로.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는 물음에 정보수집이 취미인 페로는 충격을 먹고 말았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해보지 못했대요! 그 날 이후로 주드를 졸졸 따라다니는 일상입니다. 어째서 그런 질문을 했나요, 어떻게 생각한 질문인가요, 나무 말고 다른 주제의 물음은 없을까요? 아주 끈질기게도 따라다니다가 생각해본 답을 슬그머니 내밀어봅니다. 그런 페로를 보고 그렇게까지 자신의 말이 관심이 있는걸까, 하며 신기한 주드는 그 대답을 궁금해합니다. 어느새 익숙해져버린 해답을 생각해내 주드를 찾아가는 페로, 그런 대답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주드. 엉뚱한 질문의 엉뚱한 해답이지만.. 뭐 어떨가요! 둘 다 즐거워보이네요!

:: 카렌 디카브라스 ::

[**합쳐서 230!**]

당신, 방금.. 무언가 거대한 걸 본 것 같지 않아요? 착각인 것 같다고요? 아니, 그것은 착각이 아닙니다. 당신의 눈 앞을 지나간 것은 카렌 디카브라스와 뽀레토릭 헤르미오네 페로의 합체형이죠. 둘은 합쳐서 **230**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어디서 나온 숫자인진 몰라도 **1m** 초반대의 공기를 마시던 페로가 **2m**의 공기를 체험하게 된 건 알 것 같네요. 카렌을 탈 것으로 쓰는 것 같다고요? 설마요, 그저 페로의 머리광이자 애정표현입니다! 동생이 생긴 것만 같은 카렌은 페로의 머리광을 잘 받아주는 친구이자 가족같은 사람이죠. 여담으로, 카렌의 애완 화분과 돌과 함께 밤마다 산책도 간다 해요. 산책과 키 크는 체조를 함께 하지만... 과연 카렌만큼 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230**의 그들을 보면 놀라지 마세요, 평범한 합체입니다!

:: 시빌 라 ::

[**VIP**가 되는 그날까지]

시빌, 오늘도 운세를 봐주세요! 페로는 매주의 첫걸음을 아침에 시빌에게 운세를 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누가 그런 미신같은 것을 믿어? 라고 하기엔 반쯤 장난이기도 하고, 페로에겐 흥미로운 소재이기 때문이에요. 시빌은 비싼 값의 복채를 받아갈테지만, 페로가의 재력덕분에 페로는 문제없이 운세를 볼 수 있다고 해요. 덕분에 우수고객이 된 페로에게 시빌은 때때로 카드를 하나씩 더 뽑아주거나 빵을 받곤 합니다. 페로의 흥미를 가득 채워줄 보도와 시빌의 돈주머니를 가득 채워줄 운명의 붉은 늑대입니다!

:: 오로라 ::

[그대는 비매품인가요?]

유능한 이야기꾼, 오로라. 에덴의 작은 정보상, 벨제토릭 헤르미오네 페로. 그들은 상부상조하는 거래 대상입니다. 오로라에게는 마을의 자잘한 소문과 사람들부터 꿈에 대한 이야기, 흥미를 느낀다면 어떤 이야기든 준비되어있습니다. 물론, 그에 마땅한 보수가 준비되어있다면, 가리는 것 하나없이 원하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런 그에게 페로는 적합한 거래대상이죠! 페로는 그런 오로라에게 매일같이 찾아가 이야기를 매입합니다. 홀로 해석해본 오로라의 꿈이야기를 다시 들려주기도 하고요! 늘 그럴듯 궁금한 것을 캐묻기도 하고, 그런 페로가 조금 귀찮기도 한 오로라입니다. 어라, 그대의 이야기 속에는 어째서 그대가 없죠? 오로라에게 달갑지 않은 의문이 생긴 페로는 그날부터 오로라를 매우 귀찮게 만듭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이죠! 오로라는 그런 페로를 피해다니지만, 끈질김하면 또 벨제토릭 헤르미오네 페로이니겠습니까! 불쑥불쑥 튀어나와 오로라를 건드려 봅니다. 화내지 말아요, 그래도 물어볼 거니까요! 이야기꾼이 팔아 넘기는 세상이라는 도망자를 추적한 끝에 정보상이 외칩니다. 그대는 비매품인가요?

:: 피그 카카투이다 ::

[꼬마취재기사와 꼬마발레리나]

꼬마취재기사와 꼬마발레리나의 만남! 헤르미오네 신문을 구독하다보면 카카투이다라는 이름이 심심치않게 등장할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두 가운 사이의 독점계약때문! 계약으로 맺어진 가문이지만 정작 페로와 피그는 어릴적부터 만났던지라 절친한 사이이다.

:: 물리 아마테이머스 ::

[하룻밤의 룸메이트]

페로가 단 하룻밤만 머무른 기숙사의 룸메이트 물리. 비록 하룻밤뿐이었지만 운명이란 무엇인가, 앞으로 우리의 앞엔 어떤 운명이 펼쳐질 것인가 등등 운명에 대한 토론을 하며 밤을 지새우는 사이 금세 친해진 듯 하다. 여전히 종종 물리가 간식을 싸들고 가 페로와 운명뿐 아니라 이런저런 얘기들을 한다고

:: 룩스 ::

[오늘의 머리스타일은 뭐가 좋아?]

그러고보면 저 둘, 요근래 같이있어 보이는 경우가 적잖게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페로의 머리카락을 건들이고 있는 게 대부분이지만요! 가끔은 머리를 팔아주기도 하고, 또 한 번은 크게 틀어올려 묶어주기도 하고요! 룩스는 이것저것 해보는 재미도 있고, 페로는 그 상황이 :: 나쁘지만은 않나 봅니다. 그래서 말인데 벨제토릭, 오늘은 어떤 머리스타일이 좋아? 아니, 또 그렇게 부르나요? 저는 페로라니깐 룩스는 진짜 바보예요~!!~!

:: 엠버 마리포사 ::

[향기로운 티타임 속 정보교환식]

엠버는 티타임 전에 잠깐씩 가벼운 마술을 보여주곤 합니다. 그 틈에 페로는 마술의 원리를 파헤쳐보겠다며 기웃거리지만 아직까진 원리를 알아내지 못했다고 하네요. 이 기묘한 티타임은 어떻게 만들어졌냐고요? 그것은 돌이 도서관에서 밤을 새버린 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신문과 학술지, 동화 등을 살피던 엠버에게 헤르미오네 신문이 꺼있었던 게 계기죠. 그것을 발견한 페로는 엠버에게 다가가 흥미를 가진 기사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고, 그렇게 보내버린 새벽. 날이 밝았다는 이유로 티타임을 가지며 이야기를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차에 조예가 깊은 엠버덕분에 생길 수 있었죠! 매주 같은 시간, 타 프레 교육기관의 한 구석에서는 작은 티타임이 열립니다.

:: 라시켓 에이토르벨 ::

[뒷세계의 주인같습니다! / 뒷세계엔 가본적도 없는데요?!]

라시켓이 종종 페로에게 정보를 사는 비즈니스 관계. 단지 비즈니스라고 하기에는 정보상에 뒷세계의 주인같다며 눈을 빛내는 라시켓의 모습이 다소 사심이 가득해보인다. 사심이 가득한 라시켓을 보며 답지않게 어색한 웃음만 보이는 페로다. 뒷세계의 주인이라니! 뒷세계는 가본적도 없는데?! 부하같은 것도 없는데?! 그런거 아닌데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급히 외치지만 요새는 꽤나 해탈한 것 같습니다. 자기만큼 끈질긴 사람은 간만에 보네요. 제 사심을 가득 채우는 라시켓과 어쩐지 포기한 것만 같은 페로입니다.

:: 바니 챗 ::

[해피 바니 프로젝트]

페로의 호기심 버튼을 눌러버린 바니 챗! 하지만 바니를 알아가면 갈 수록 괴롭히기 보단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페로. 이런 페로에게 바니는 점점 힐링 받고 이제는 용기내어 자기를 곤란하게 만든 사람들을 끈지를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는데 ..! 머지않았다! 페로의 토끼 한마리 행복하게 만드는 날이!

:: 케이틀린 베일리스 ::

[사과는 사과사탕을 타고]

입학 초, 아주 사소한 말다툼이었지만 뒤끝이 긴 두 사람은 참 오랫동안이나 냉전상태를 유지했습니다. 페로의 원한을 산 케이틀린은 한동안 가십거리에 시달렸고, 페로는 지나다니기만 해도 음산스런 눈초리에 시달렸다면가요? 이 전쟁에 마침표를 찍은 것은 다름 아닌 사과사탕이었습니다. 케이틀린이 페로 자리에 몰래 가져다 놓는 것을, 다른 친구가 페로에게 말해준 것이죠! 그 후로는 케이틀린에게 달라붙는 페로와 그런 페로를 귀찮아하는 케이틀린이지만, 끝내는 받아주는 모양이 마냥 귀찮아만 하는 것 같지는 않아보여요. 하한번 정리해봤는데 빼거나 더하거나 고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운명은 승리한 자의 여유이다.

운명을 파괴하는 자에게만이 승리가 찾아올 것이니.